

# 《論語》“見志不從” 관련 문장에 대한 어법특징 고찰

邊滢雨\*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見志不從’문장
  - III. ‘又敬不違’문장
  - IV. ‘勞而不怨’문장
  - V. 맺음말
- 

## I. 들어가는 말

《論語》문장에서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의 문장에 대한 여러 번역서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부분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의 권위 있는 번역서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 (1) 楊伯峻 - 孔子說：“待奉父母，〔如果他們有不對的地方，〕得輕微婉轉地勸止，看到自己的心意沒有被聽從，仍然恭敬地不觸犯他們，雖然憂愁，但不怨恨。”
- (2) 成百曉 -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諫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 (3) 車柱環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드럽게 간하며, 부모의 뜻이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또 공경스럽게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괴로울 것이나 원망하지는 않을 일이다.”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우선 ‘見志不從’에서 ‘志’는 누구의 ‘志’인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종합해보면,

- (1) 楊伯峻 - 自己的心意
- (2) 成百曉 - 부모의 뜻
- (3) 車柱環 - 부모의 뜻

‘志’에 대해서 楊伯峻은 자신의 뜻으로 풀이를 하였고, 成百曉와 車柱環은 부모의 뜻으로 풀이를 하였다. 여기서 서로 해석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문장구조의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은 ‘志’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志不從’을 ‘見’의 목적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論語》에서 ‘見’의 용법과 “見志不從”의 문장구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있을 후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又敬不違’에서 ‘違’ 부분은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다’의 의미로 대동소이하게 해석을 하여 문제가 없지만, ‘又’와 ‘敬’의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 (1) 楊伯峻 - 仍然恭敬地不觸犯他們
- (2) 成百曉 -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 (3) 車柱環 - 또 공경스럽게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楊伯峻은 ‘又’를 ‘仍然’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成百曉는 ‘더욱’으로 車柱環은 ‘또’로 해석을 하고 있다. ‘敬’의 부분에서 楊伯峻은 ‘恭敬地’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成百曉는 ‘공경하고’로 동사의 역할 방식으로, 車柱環은 ‘공경스럽게’로 해석을 하여 楊伯峻처럼 부사어로 해석을 하고 있다. 역시 ‘又’와 ‘敬’과 ‘又敬不違’의 문장구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勞而不怨’에서도 ‘勞’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 (1) 楊伯峻 - 雖然憂愁, 但不怨恨.”
- (2) 成百曉 -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 (3) 車柱環 - 괴로울 것이나 원망하지는 않을 일이다.”

楊伯峻은 ‘勞’를 ‘憂愁’(우울하고 걱정스럽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成百曉는 ‘수고

롭다’로 車柱環은 ‘괴롭다’로 풀이를 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勞’의 정확한 의미와 “勞而不怨”의 문장구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있은 후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기 문장의 분석을 위해서 《論語》 예문의 통계 및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論語》에서 예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몇 고한어 사전 및 《孟子》, 《荀子》, 《左傳》, 《國語》 등의 전적에서 전형적인 예를 찾아서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II. ‘見志不從’문장

### 1. ‘見’의 용법

《論語》에는 ‘見’이 총 67차례 나타난다. ‘見’의 용법을 음의 구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jiàn/(廣韻)古電切

/jiàn/(廣韻)古電切의 음을 갖는 것으로 타동사로 일반적인 “보다” 의미인 見1이 있으며 《論語》에 46차례 나타난다.

- (1) 見義不爲, 無勇也. 《論語2·24》  
(옳은 일임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 (2)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 見之, 雖少, 必作. 《論語9·10》  
(선생님께서 喪服을 입은 사람과 冕服을 입은 사람과 눈먼 사람을 보게 되면, 비록 年少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셨다.)
- (3)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 《論語9·21》  
(안타깝구나!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았지 그가 멈추어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보다”의미인 見1의 목적어는 (1)(2)의 체언성 목적어와 (3)의 용언성 목적어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1)과 같은 추상의미의 목적어와 (2)와 같은 구체의미의 목

적어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見志不從’의 ‘보다’의미의 ‘見1’은 용언성 목적어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志不從’을 ‘見’의 목적어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見’의 뒤에 오는 용언성 목적어가 ‘志不從’처럼 된 부정형식은 없었다. 기타 전적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4) “吾見新鬼大，故鬼小。”《左傳·文公二年》(新鬼：僖公의 귀신, 故鬼：閔公의 귀신)  
(나는 새 귀신은 크고, 옛 귀신은 작은 것을 보았다.)
- (5) “見靈輒餓，問其病。”《左傳·宣公二年》  
(靈輒가 몹시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의 병에 대해 물었다.)
- (6) “顓見老人結草以亢杜回。”《左傳·宣公十五年》  
(魏顓는 한 노인이 풀을 엮어서 杜回를 막는 것을 보았다.)
- (7)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孟子·公孫丑上》  
(이제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힐끗 보기만 해도 모두 겁이 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4)(5)(6)의 예처럼 모두 용언성 목적어가 짧은 것이 올 수도 있고 긴 것이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志不從’과 같은 부정형식의 용언성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없었다.

/jiàn/(廣韻)古電切의 음을 갖는 것으로 ‘~을 알다, ~을 느끼다’의 의미인 타동사 見2가 있으며 이 의미인 경우에는 목적어는 《論語》에는 모두 용언성 목적어가 왔다.

- (8) 人雖欲自絕，其何傷於日月乎？多見其不知量也！《論語19·24》  
(사람이 스스로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해와 달에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단지 공자에 대해서 도량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을 느낄 뿐이다.)
- (9) 安見方六七十，如五六十而非邦也者？《論語11·26》  
(어찌 사방 6·70리나 5·60리가 되는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10) “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孟子·梁惠王下》  
(국민들이 다 ‘안 된다’ 하고 말한 후에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가 안 되겠

음을 알게 되면 그 후에 그를 제거하십시오.)

- (11) 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孟子·梁惠王下》  
(국민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하고 말한 후에 그 사람을 살펴보고, 죽여야 하겠음을 알게 된 후에 그를 죽이십시오.)
- (12) “見勝而戰，弗見而靜，此王者之將也。”《孫臏兵法·八陣》  
(이길 것을 알면 싸우고, 이길 것을 알지 못하면, 조용히 있다. 이런 사람이 왕의 장수이다.)
- (13) “他日吾見蔑之面而已，今吾見其心矣。”《左傳·襄公二十五年》(蔑：黷蔑로 然明의 별명)  
(이전에 본 것은 然明의 얼굴 모습만 봤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

(10)(11)의 예도 ‘見2’ 뒤에 용언성 목적어가 온 경우이지만, (11)의 경우처럼 ‘心’과 같은 체언성 목적어가 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見2의 목적어는 용언성이 주로 쓰이며, (8)(9)처럼 단문으로 끝나거나,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는 (10)(11)처럼 복문의 앞절 문미에 쓰여, 서술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다음 문장을 끌어내는 어기를 나타내는 ‘焉’을 써서 복문을 실현하거나, (12)처럼 짧은 용언성 목적어와 접속사‘而’를 쓰는 형식을 취한다. ‘見志不從’이 있는 문장은 단문이 아닌 병렬복문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見2의 의미라고 보게 되면, ‘焉’과 같은 어기사 혹은 접속사 등을 써주어야 하지만, 어떠한 어기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見志不從’의 見은 見2의 의미로 보기에 용법상 맞지 않는다고 본다.

/jiàn/(廣韻)古電切의 음을 갖는 것으로 동사의 앞에 쓰여 피동을 나타내는 조사가 있으며, ‘見志不從’에서 志는 우선 명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사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14) 年四十而見惡焉，其終也已。《論語17·26》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게 되면 마지막일 뿐이다.)

## 2. /xiàn/(廣)胡甸切

/xiàn/(廣)胡甸切<sup>1)</sup>의 음을 갖는 것으로 타동사인 ‘알현하다’의미인 見4가 있으

며 《論語》에 16차례 나타난다.

- (15) 子見南子, 子路不說. 《論語6·28》  
(선생님께서 南子를 배알하자 子路는 좋아하지 않았다.)
- (16) 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 《論語17·20》  
(孺悲가 孔子를 배알하고자 하였으나 孔子께서는 병을 이유로 면회를 거절하셨다.)

‘알현하다’의미인 見4일 때 목적어는 배알하는 대상인 사람이 오기 때문에 ‘見志不從’에서의 ‘見’을 見4로 보기 어렵다.

/xiàn/(廣)胡甸切的 음을 갖는 것으로 자동사인 ‘나타나다, 출현하다’의미인 見5가 있으며 《論語》에 1차례 나타난다. ‘나타나다, 출현하다’의미인 見5는 나중에 ‘現’으로 쓰이게 된다.

- (17)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論語8·13》  
(세상에 正道가 행하여지면, 나타나고, 세상에 正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숨는다.)
- (18) ‘不直, 則道不見.’ 《孟子·滕文公上》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道가 나타나지 않는다.)

見5는 자동사로 목적어를 갖지 않는 특성 때문에 ‘見志不從’의 見을 見5로 보기는 어렵다.

/xiàn/(廣)胡甸切的 음을 갖는 것으로 타동사인 ‘나타나다’의미인 見6이 있으며 《論語》에 1차례 나타난다. 見5와 마찬가지로 후에 ‘現’으로 쓰이게 된다.

- (19)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論語4·18》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완곡하게 諫하며,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부모가 그것(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1) ‘見’이 ‘배알하다’의 의미일 때, 廣韻에서는 胡甸切로 되어 있어 /xiàn/으로 읽는 것이 맞지만, 현대중국어의 발음은 그 음을 이어 받지 않고 /jiàn/으로 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상에는 ‘舊讀/xiàn/’이라고 적지만, 본고에서는 廣韻의 음을 기준으로 하여 /xiàn/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어기지 않고, 수고스럽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는다.)

(19)에에서의 見6을 ‘나타내다’의 타동사로 보는 이유는 見1에서부터 見5까지의 용법을 비교해봤을 때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타내다’의미인 見6으로 보았다. 그밖에 근거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拙稿 “《論語》《孟子》 중의 ‘P不P’문형 고찰”에서 《論語》의 ‘傳不習乎?’문장을 ‘P不P’문형으로 분석을 한 바 있다. P는 Predicate의 약자로 술어성 성분을 뜻하며, ‘不’를 중심으로 자주 긴축복문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傳不習乎?’는 ‘(선생님이) 전하였는데, 익히지는 않았는가?’의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문장의 특성은 문장에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傳’과 ‘不習’의 주어(주체)는 서로 달라도 긴축복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見志不從’도 역시 ‘見’과 ‘不從’도 주체가 다른 상황(‘見’의 주체는 자식, ‘不從’의 주체는 부모)의 ‘P不P’문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見志不從’문장의 어법적 해석

들어가는 말에서 서술했듯이 세 학자의 ‘見志不從’에서 ‘志’는 누구의 ‘志’인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楊伯峻은 자신의 의향으로, 成百曉와 車柱環은 부모의 뜻으로 해석을 하였으며, 게다가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은 ‘志不從’을 ‘見’의 목적어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해서, 앞에서 ‘見’을 용법 설명과 더불어 본고에서는 어법적 접근을 시도해본 것을 종합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20)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論語4·18》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완곡하게 諫하며,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부모가 그것(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는다.)

‘見志不從’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20)의 문장을 보면, ‘事父母’와 ‘諫’의 주어는 우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행위를 나타내며, 크게 용법상 특수성이 없으면, 주어는 자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見志不從’의 문장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見志不從’은 ‘P不P’형식의 긴축복문이며, ‘見’은 나중에 現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자동사와 타동사가 함께 존재하며, 이 문장에서는 ‘나타내다’의미의 타동사이다. ‘志’는 자식의 의향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게다가 ‘從’은 (21)의 예는 아랫사람이 명령을 듣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22)는 천자가 간언을 듣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不從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간언 등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見志不從’에서의 ‘不從’은 “부모가 자식의 의향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1) 其身不正, 雖令不從. 《論語13·6》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2) ‘昔吾驟諫王, 王不從, 是以及此難.’ 《國語·周語上》

(邵公이 말하길, “예전에 나는 여러 차례 천자에게 간언을 했는데, 천자는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때문에 이러한 재난에 이르게 되었오.”)

### Ⅲ. ‘又敬不違’문장

#### 1. ‘又’와 ‘敬’의 용법

《論語》에는 ‘又’는 모두 15차례 나타나며, 다음의 예문처럼 5가지의 용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동작의 연속, 중복을 나타냄.

(23) 孟武伯問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又問. 《論語5·8》

(孟武伯이, “子路는 仁慈합니까?”하고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하였는데, 또 물었다. 고 하셨다. 또 여쭙어 보자)

(2) 병렬관계를 나타냄.

(24)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論語3·25》

(선생님은 韶에 대해서 美를 다 갖추었고 善을 다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3〉 전환관계를 나타냄.

(25)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 《論語4·18》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완곡하게 諫하며,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부모가 그것(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는다.)

〈4〉 문장이 차례로 이어짐을 나타냄.

(26) 困而學之，又其次也. 《論語16·9》

(곤란해져서 배우는 것은 그 다음이다.)

〈5〉 반어문에 쓰여 반문의 어기를 강화킴.

(27) 求仁而得仁，又何怨? 《論語7·15》

(仁慈함을 추구하여 仁慈함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하였겠느냐?)

‘又敬不違’의 ‘又’는 전환관계의 문장에서 쓰인 것으로, 楊伯峻의 ‘仍然’으로 해석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도’ 혹은 ‘여전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기타전적의 예를 살펴보면, (28)예와 같은 것이다.

(28) “不能治近，又務治遠，不能察明，又務見幽.” 《荀子·王霸》

(가까운 것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먼 것을 다스리려 애쓰고 분명한 것도 잘 살피지 못하면서 어두운 것을 보려고 애쓴다.)

《論語》에 ‘敬’은 모두 21차례 쓰였다. ‘敬’은 크게 형용사와 동사로 나눌 수 있다. 형용사의 의미는 ‘신중하다, 삼가다’의 의미를 가지며, 16차례 쓰였다.

(29) 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 《論語5·16》

(개인 행동은 공손하였고, 위사람을 섬기는 데는 신중하였으며, 백성의 생활을 돌봐주는 데는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리는 데는 의로웠다.)

(30) 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 《論語1·5》

(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에 신중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신용 있게 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국민을 부린다.)

(31) 使民敬，忠以勸，如之何? 《論語2·20》

(국민들을 신중하게 하고 온 정성을 다하게 하고 善行에 힘쓰도록 권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용사 (29)와 같은 예는 상태를 나타내며 모두 5차례 쓰였으며, (30)(31)의 예는 형용사의 의지성(自主性) 의미자질을 지닌다. 의지성(自主性) 의미자질을 지닌 예는 모두 11차례 쓰였으며, (30)은 유일하게 뒤에 명사성 성분이 온 예이다. 10차례의 예는 뒤에 명사성 성분이 오지 않았다.

‘又敬不違’문장에서의 ‘敬’은 형용사가 아닌 ‘존경하다, 존중하다’의미의 동사로 5차례 쓰였으며,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목적어가 나타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論語5·17》

(晏平仲은 남들과 잘 사귀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33) 務民之義，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論語6·22》

(국민에 대한 정의를 살리는데 힘쓰고, 귀신들을 존중하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34) 門人不敬子路。《論語11·15》

(제자들이 子路를 존경하지 않았다.)

(33)은 특이하게 ‘鬼神’을 목적어로 가졌지만, (32)(34)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목적어로 지닌다. ‘又敬不違’에서의 ‘敬’은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었지만, 부모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又敬不違’에서의 ‘敬不違’도 역시 P不P문형으로 긴축복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IV. ‘勞而不怨’문장

##### 1. ‘勞’와 ‘怨’의 용법

‘勞’는 《論語》에 9차례 나타난다. ‘수고롭게 하다’의미의 타동사는 6차례 나타나고, ‘공로’의미의 명사는 1차례 나타난다. 그리고 ‘勞而不怨’과 같이 쓰인 ‘수고스럽

다의미의 형용사는 3차례 나타난다. 《古辭辨》(865쪽)의 ‘勞’에 대한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勞”，最初是個動詞，大體上相當於現代說的勞動・勞作，是付出力氣的意思。《墨子・號令》：“地不得其任，則勞而無功。”，“勞而無功”，是付出勞動而沒有相應的收穫；《孟子・梁惠王下》：“勞者弗息”，是勞作的人得不到休息。引申開來，消耗體力之後的疲乏的感覺或狀態也稱“勞”。

처음에는 ‘노동하다, 일을 하다’의 동사용법으로 《墨子・號令》의 “地不得其任，則勞而無功.”문장과 《孟子・梁惠王下》의 “勞者弗息”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으며, “체력이 다된 후의 피폐한 감각이나 상태”로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즉, 처음에는 동사의 용법으로 쓰였다가 형용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5) 故曰，或勞心，或勞力，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孟子・滕文公上》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고,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한테서 먹는 것이 온 天下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 (36) 萬章曰，“父母愛之，喜而不忘，父母惡之，勞而不怨。”《孟子・萬章上》  
 (萬章이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부모가 미워하면 애쓰면서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하고 말씀하셨다.)
- (37) 孟子曰，“以佚道使民，雖勞不怨。以生道殺民，雖死不怨殺者。”《孟子・盡心上》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부리면 힘 든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방식으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35)에서의 ‘勞’는 형용사의 사동용법이며, “마음을 수고스럽게 하다”와 “몸을 수고롭게 하다”의 의미 모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용법이 (36)와 (37)처럼 형용사로 쓰였을 때, (36)의 ‘勞’는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러움’의 의미에 치

중되어 있고, (37)의 ‘勞’는 ‘몸이 힘들고, 수고스러움’에 치중되어 있다. 《古辭辨》(865쪽)의 “勞”에 대한 해설처럼 “체력이 다된 후의 피폐한 감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러움’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楊伯峻은 ‘勞’를 憂愁(우울하고 걱정스럽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成百曉는 ‘수고롭다’로 車柱環은 ‘괴롭다’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38)과 (39)의 예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 (38)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論語4·18》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완곡하게 諫하며,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부모가 그것(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는다.)
- (39) 萬章曰，“父母愛之，喜而不忘，父母惡之，勞而不怨。”《孟子·萬章上》  
 (萬章이 “부모가 사랑하면 기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부모가 미워하면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러우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38)의 “勞”는 자신의 의향을 내비치는데, 부모가 그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공경하면서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지내는 상황에 대해서 ‘勞’를 표현한 것으로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39)의 “勞”는 부모가 미워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의 해설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勞”는 “몸”과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데, (38)과 (39)에서는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러움(혹은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怨’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古辭辨》(P.844)을 참고할 수 있다.

“恨”·“憾”都是自我不滿足，而“怨”則是外向的，是對別人不滿，責怪別人。《荀子·天論》：“受時與治世同，而殃禍與治世異，不可以怨天，其道然也。”《史記·屈原列傳》：“《國風》好色而不淫，《小雅》怨誹而不亂”：“怨”都是埋怨·抱怨·責難的意思。“怨”不僅表示輕微的抱怨，更經常的是表示深刻的仇。

‘恨’·‘憾’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반면, ‘怨’은 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남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38)(39)의 ‘부모’, (40)‘승자’, (41)‘왕’, (42)‘하늘’ 등으로윗사람이나 상급자 등에 해당한다. 게다가 안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40)(41)(42)는 경미한 원망으로 볼 수 있으며, (43)의 예처럼 원망의 정도가 심한 ‘증오’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40) 仁者如射，射者正己而後發，發而不中，不怨勝己者，反求諸己而已矣。”

《孟子·公孫丑上》

(인자한 사람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사람은 자기를 바로잡고 난 후에 쏜다. 쏘아서 과녁에 맞지 않아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 자기한테서 결점을 찾을 뿐이다.)

(41) 柳下惠不羞汙君，不卑小官，進不隱賢，必以其道，遺佚而不怨，阨窮而不憫。《孟子·公孫丑上》

(柳下惠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작은 벼슬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벼슬하러 나가면 자기의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이념대로 해 나갔고,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고, 곤궁에 빠져도 원망하지 않았다.)

(42) 孟子去齊，充虞路問曰，“夫子若有不豫色然。前日虞聞諸夫子曰，‘君子不怨天，不尤人。’”《孟子·公孫丑下》

(孟子께서齊나라를 떠나시자, 充虞가 길에서 묻기를, “선생님은 불유쾌한 기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 제가 선생님에게서 들은 말씀에, ‘君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고’고 하더군요.”)

(43) 抑王興甲兵，危士臣，搆怨於諸侯，然後快於心與？《孟子·梁惠王上》

(대체로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켜 선비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諸侯들의 증오를 받은 후에야 마음이 통쾌하시겠습니까?)

## 2. ‘勞而不怨’문장의 어법적 해석

Ⅲ장 1절에서 살펴본 ‘勞而不怨’의 문장에서의 ‘勞’와 ‘怨’의 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勞〉

1) 동사의 용법 ‘애를 쓰다, 힘을 쓰다’에서 파생된 형용사 용법으로 ‘수고스럽다’의 의미이다.

2) 마음이나 체력이 다 된 후의 피폐한 감각이나 상태를 모두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見志不從’하지만 ‘又敬不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다(혹은 괴롭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怨〉

1) ‘恨’·‘憾’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지만, ‘怨’은 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2) 일반적으로 ‘怨’의 불만 대상은 주로 윗사람이나 상급자가 온다.

3) ‘怨’은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마음속에 품는 의미가 강하다.

4) 경미한 원망의 의미와 정도가 심한 ‘증오’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경미한 원망의 의미를 갖는다.

‘勞而不怨’에서 접속사 ‘而’이 쓰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論語》《孟子》 중의 “P不P”문형 고찰”에서 살펴본 “P不P”문형에서 ‘不’앞의 P가 형용사인 경우는 (44)(45)(46)의 예가 있었다.

(44) 色惡不食. 臭惡不食. 《論語10·8》

(빛깔이 나쁘면 드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쁘면 드시지 않으셨다.)

(45) 孟子曰, “以佚道使民, 雖勞不怨. 以生道殺民, 雖死不怨殺者.” 《孟子·盡心上》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편안하게 해주는 길로 백성들을 부리면 힘들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길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46) 故士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 《孟子·盡心上》

(그래서 선비는 궁해져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돼도 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요. 義理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의 本性을 유지하고, 잘 돼도 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47)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論語4·18》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완곡하게 諫하며,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데 부모가 그것(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는다.)

(44)에서는 형용사가 ‘不’앞에 단독으로 오지 않고 주어가 있으며, 술어역할을 하면서, 긴축가정복문을 이루고 있으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형식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45)에서는 ‘不’앞의 ‘勞’가 형용사이지만, 앞에 접속사 ‘雖’를 써서 긴축양보복문을 이루고 있다. 즉, 문장간의 관계를 ‘雖’의 형태표지로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형용사가 ‘不’앞에 단독으로 오지 않고 주어가 있으며, 그 뒤에 “P不P” 문장의 생략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대구를 이루고 있다.

(47)는 (44)(45)(46)처럼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의 ‘見志不從, 又敬不違’에서 ‘不’앞의 성분은 동사 혹은 동사구로써, 형용사 ‘勞’와는 품사가 다르며, (45)처럼 접속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而’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본고는 해석상에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나는 《論語》의 ‘見志不從’문장을 제목으로 삼아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의 전체 문장을 언어학적으로 어휘의 의미와 용법, 그리고 통사구조를 살피면서 나름대로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문장별로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事父母幾諫〉

- 1) 긴축복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見志不從〉

- 1) P不P문형으로 이루어진 긴축복문 문장이다.

2) ‘見’은 후에 ‘現’으로 쓰였으며, 자동사의 ‘나타나다’와 타동사의 ‘나타내다’의 의미를 모두 지니지만, 이 문장에서는 타동사의 ‘나타내다’의 의미이다.

3) ‘見志’((자식이) 의향을 나타내다)와 ‘不從’((부모가)받아들이지 않다)의 생략된 주어는 다르다.

〈又敬不違〉

- 1) P不P문형으로 이루어진 긴축복문 문장이다.
- 2) ‘又’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 3) ‘敬’은 동사의 의미로 ‘존경하다’의 의미이다.

〈勞而不怨〉

1) P不P문형에서 앞의 P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나 유사구조의 대구형태가 없어서, 접속사 ‘而’를 써준 형태이다.

2) ‘勞’는 마음으로 힘들거나 수고스러움(혹은 괴로움)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3) ‘怨’은 경미한 정도의 ‘원망’을 나타낸다.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의 문장에서 각각 4개의 문장은 모두 긴축복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P不P문형 ‘見志不從’의 특수성 때문에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又敬不違’도 ‘見志不從’문장과 전환관계에 있으며, P不P문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勞而不怨’도 긴축형태이지만, 앞의 P부분이 형용사이면서 주어가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접속사 ‘而’를 갖게 된 문장임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사전류〉

王力主編, 《王力古漢語字典》, 中華書局, 20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北京), 20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北京), 2002.

王鳳陽著, 《古辭辨》吉林文史出版社, 1993.



〈서적류〉

-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0.  
楊伯峻, 《論語譯注》, 中華書局, 1992.  
程樹德, 《論語集釋》, 中華書局, 1990.  
車柱環, 《(한역)논어》, 과주: 敎文社, 2005.  
拙稿, 《論語詞典》,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附錄(未刊), 1997.  
成百曉, 《(懸吐完譯)論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8.

〈논문류〉

- 拙稿, 《論語》《孟子》 중의 “P不P” 문형, 《中國文學研究(50輯)》, 2013.

### 【中文提要】

歷來對《論語》的“見志不從”的解釋頗有分歧，代表性的解釋3種。爲了考察，我們對“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句子進行詞彙和句法的分析。進行的結果如下：

〈事父母幾諫〉

- 1)構成緊縮複句

〈見志不從〉

- 1)以P不P句型構成的緊縮複句
- 2)“見”後來寫作“現”，是古今字。“見”帶有及物動詞和不及物動詞的特征，而此句表及物動詞的特征。

3)“見志”(子女)表示意願·志向)句和“不從”(父母)不聽從)句的省略的主語不同。

〈又敬不違〉

- 1)以P不P句型構成的緊縮複句
- 2)“又”表轉換的副詞

〈勞而不怨〉

1)類似於P不P句型的形式。如果前P爲形容詞，而且不帶連詞和類似句子的對句形式，一般要加上轉換關係的連詞“而”。

2)“勞”表心理上的辛苦、勞苦的形容詞.

3)“怨”表輕微的“怨恨”.

“事父母幾諫，見志不從，又敬不違，勞而不怨.”裏的4個句子都是以P不P句型構成的緊縮複句. 因為P不P句型“見志不從”具有省略主語的不同的特殊性，就會出現不同的解釋. 雖然最後句子“勞而不怨”也是緊縮複句，但因為前P為形容詞，所以要加上連詞“而”的.

### 【主題語】

論語, 긴축복문, P不P문형, 見, 敬, 勞, 怨

論語, 緊縮複句, P不P句型, 見, 敬, 勞, 怨

Confucius ana, contraction compound sentence, P不Psentence, 見, 敬, 勞, 怨

투고일: 2016. 4. 14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
---